

‘거주자 우선 주차’ 도입해 주오... 광주 남구는 ‘골머리’

“출퇴근 시간마다 이웃간 갈등” 월산동 중심 지정 민원 잇따라 2002년 시범 운영... 유료화 거부감·공간 부족 등에 도입 안해

광주시 남구 월산동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시행을 요구하자 남구가 고민에 빠졌다. 출퇴근 시간마다 이웃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지정해달라는 민원이나 선뜻 시행할 수 없어서다. 이미 남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95% 주민이 폐지를 요구하고 주차요금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도 커 결국 폐지한 바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27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남구 월산동을 중심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지정해달라는 민원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이어지자 일부 주민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6일 찾은 광주시 남구 월산동·주월동 주택가는 골목마다 뺨뺨하게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골목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틈밖에 없었고, 일부 좁은 골목은 주차된 차 탓에 아예 차가 다닐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됐다. 한 트럭 운전자는

겨우 찾아낸 틈새에 주차를 시도하다 공간이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차를 돌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토요일마다 무등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군분로 토요일시장’ 영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자, 주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골목을 수차례 돌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월산동 주민 조정호(57)씨는 “내 집 앞에 누군가 주차를 해놓으니 나도 뺨뺨 돌아 남의 집 앞에 차를 대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모(여·60)씨도 “주차 때문에 큰 싸움이 나는 걸 여러번 봤다. 출근시간에는 ‘이중주차된 차 좀 빼달라’, 퇴근시간에는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놨냐’는 식이다”며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 어쩔 수 없지만 주차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남구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설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6개월간 진월동과 주월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결국 폐지됐기 때문이다.

?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주차면을 만들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부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주차 등록 하지 않은 사람도 어플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면 비어있는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설치 가능한 주차면이 적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시범운영 시작 전에는 주민의 25% 가량이 찬성했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하자 주민 90% 이상이 반대해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 주차요금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과 외부차량 과태료·견인 처분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남구 관계자는 “당시 반발이 워낙 심해 주차 금액 유료화는 커녕 부정·불법주차 과태료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북구 중흥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시행 중이다. 북구 주민들은 “제도 시행 초반 일부 어르신들이 집 앞에 주차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실랑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받아들인 듯하다”고 전했다.

박관식(54)씨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3년 전 중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골목에 지난 26일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주차돼 있다.

흥동으로 이사왔는데, 내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을 일이 없어서 좋다”며 “특히 뺨뺨하게 주차된 차를 탓에 아이들이 사고날 위험이 높았는데, 적정 거리를 두고 주차가 이뤄지니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구는 우선주차제도 시행에 적합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관리·단속 인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적절할 운영이 힘들다는 결론이 났다”며 “계다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차장법상 우선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골목이 6m 이하로 노상주차장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7일 캄보디아인들이 캄보디아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캄보디아인 수 백명 광주서 민주화 촉구 집회

캄보디아인 수백 명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자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캄보디아민주화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39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총리 추방과 정치범·사회운동가 석방을 촉구했다.

광주 집회에는 우리나라와 해외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금남로 등지에서 행진하며 캄보디아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CLV(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공동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빈(여·32)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 같은 관계다. 훈센총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베트남에게 영토 일부를 빼앗길 위험이 있는 CLV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캄보디아어로 번안해 부르기도 했다.

비블 광주캄보디아민주공동체 대표(40)는 “캄보디아도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해 이날 미국·일본·유럽에 흩어져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광주에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전날 5·18기념재단에서 ‘민주사회 리더십의 민주주의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으며, 전일빌딩245를 둘러보기도 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직업교육 박람회’ 29일 개막

광주시교육청, DJ센터

광주시교육청이 29~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교육청이 주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경제자유구역청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먼저 만나는 꿈, 꿈을 이루는 열쇠’를 주제로 13개 직업계고등학교가 마련한 체험 부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기관 홍보부스, 각종 부대행사 등이 운영된다.

광주지역 13개 직업계고는 박람회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안내, 입학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드론·영상촬영·뷰티 체험·은행 창구 체험 등 전공 체험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고용노동청·광주그린카진흥원·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한국산업인력공단·광주경제자유구역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2개 기업체도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현장 채용 면접 등을 실시한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의 1대 1로의 면접, 자소서 준비 방법 등을 지원한다.

다산에듀 전병철 대표와 ‘잉글리시 365’ 고영진 대표의 명사 특강도 진행된다.

/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연구자 62명 ‘세계 2% 과학자’ 명단에

“연구중심 대학 위상 강화할 것”

전남대학교 연구자 62명이 ‘세계 2% 과학자’ 명단에 올랐다.

27일 전남대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 분석·연구 논문 출판 기업인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2023 세계 최상위 2% 과학자’(World Top 2% Scientist)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 소속 62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생애 업적 기준 27명, 해당 연도(2023년) 기준 58명이었으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연구자는 23명이었다.

상위 2%는 세계적으로 10만명이 해당하며 국

내에서는 생애 기준 2364명, 2023년 기준 3498명이 포함됐다고 전남대는 전했다.

이 명단은 22개 과학 분야, 174개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논문의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이 주요 선정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연구 역량이 세계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투명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북구 ‘임동 커뮤니티 센터’ 문 열어

광주시 북구 임동에 주민 복합 여가 생활공간인 ‘임동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30일 임동 커뮤니티센터(광주시 북구 임동 470번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관식이 열린다.

북구는 무등경기장 인근에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임동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부터 조성 사업을 개시해 2년만에 준공됐으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입됐다. 지

상 1·3층 연면적 299.61㎡ 규모로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시설 관리, 활용에는 임동 주민자치회, 버드리아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단체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임동 커뮤니티 센터가 주민 간 소통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